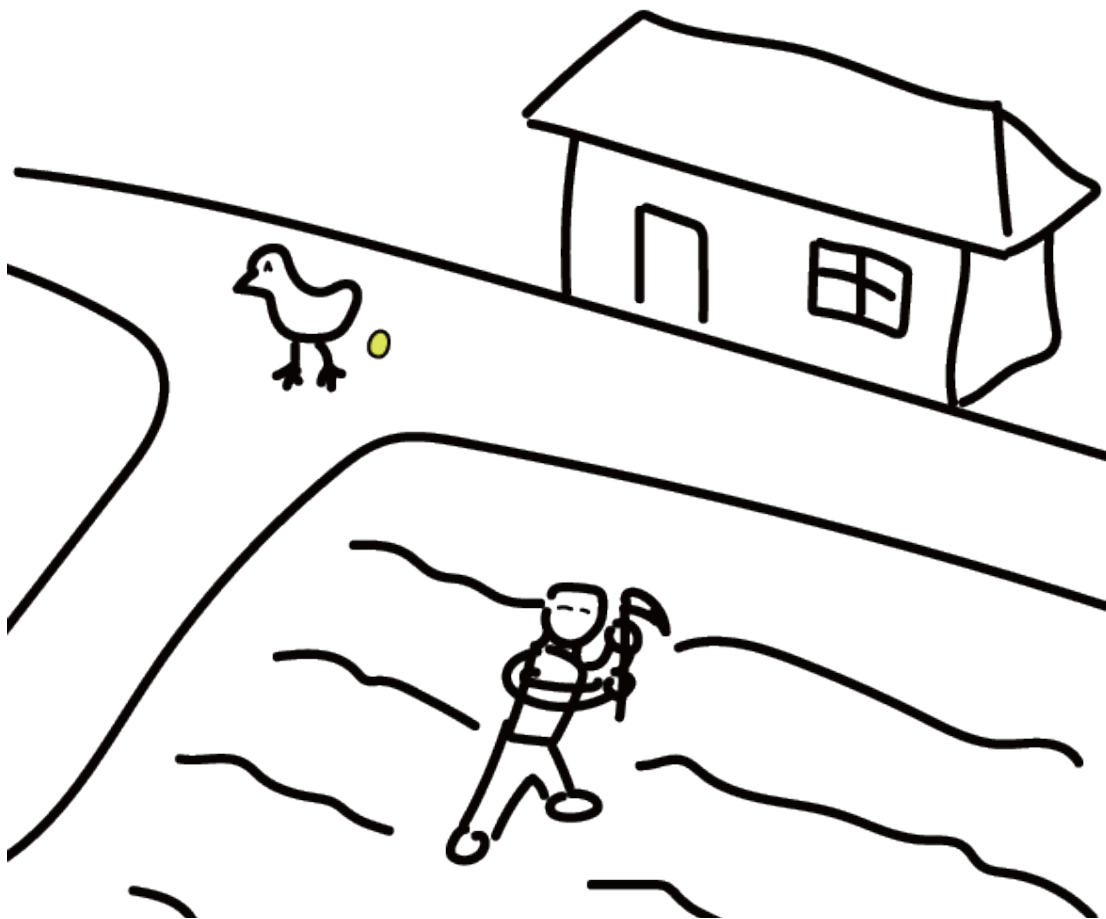


글 문성찬
그림 문성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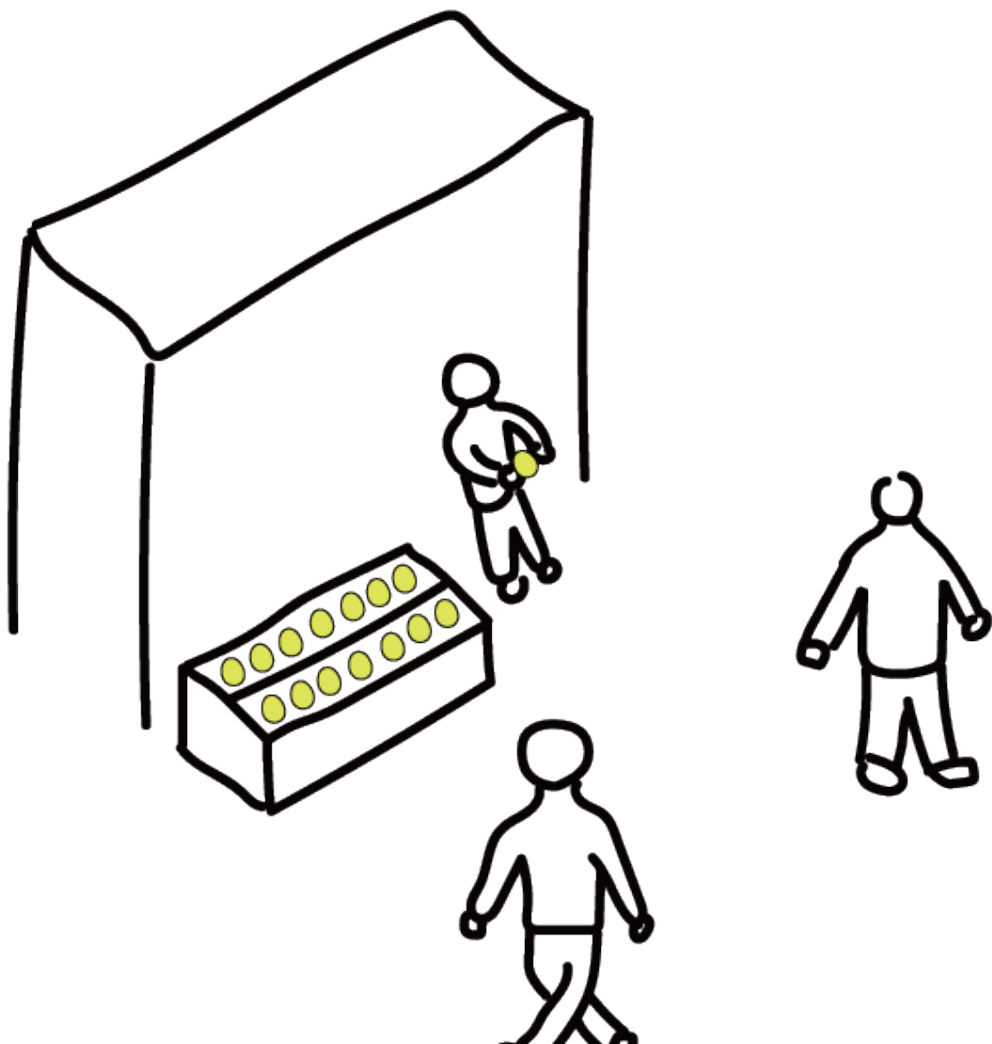
옛날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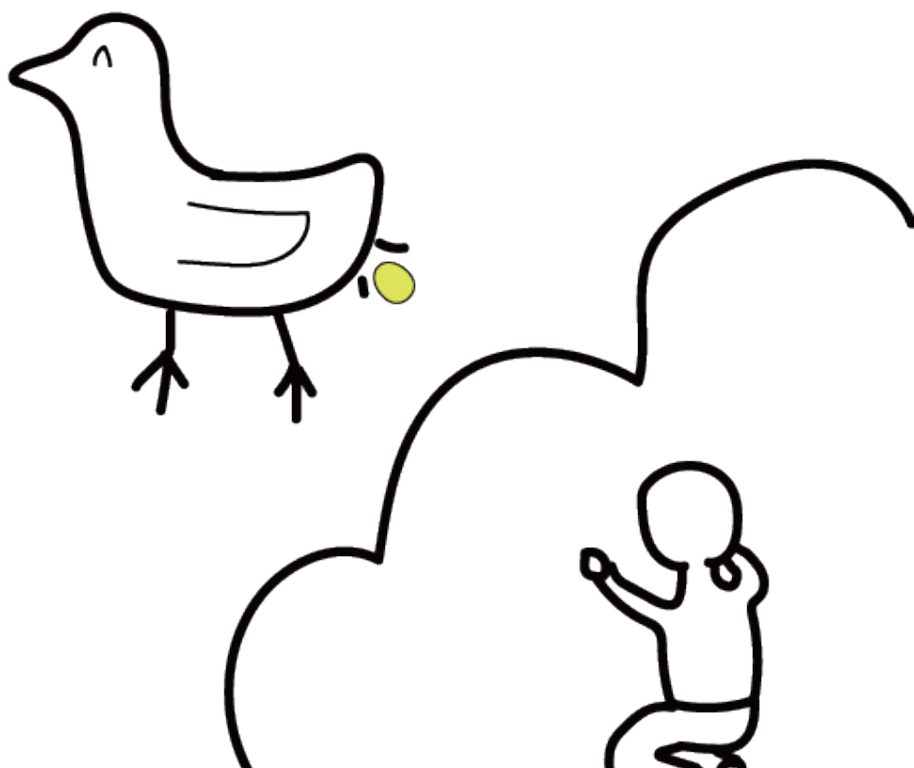
농부는 거위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거위는
신기하게도 매일 황금 알을 낳는 것이었어요.

02

농부는 매일 황금 알을 내다 팔아서
먹을 거리를 마련하고는 했어요,

하지만 거위는 황금 알을
하루에 딱 한 개씩만 낳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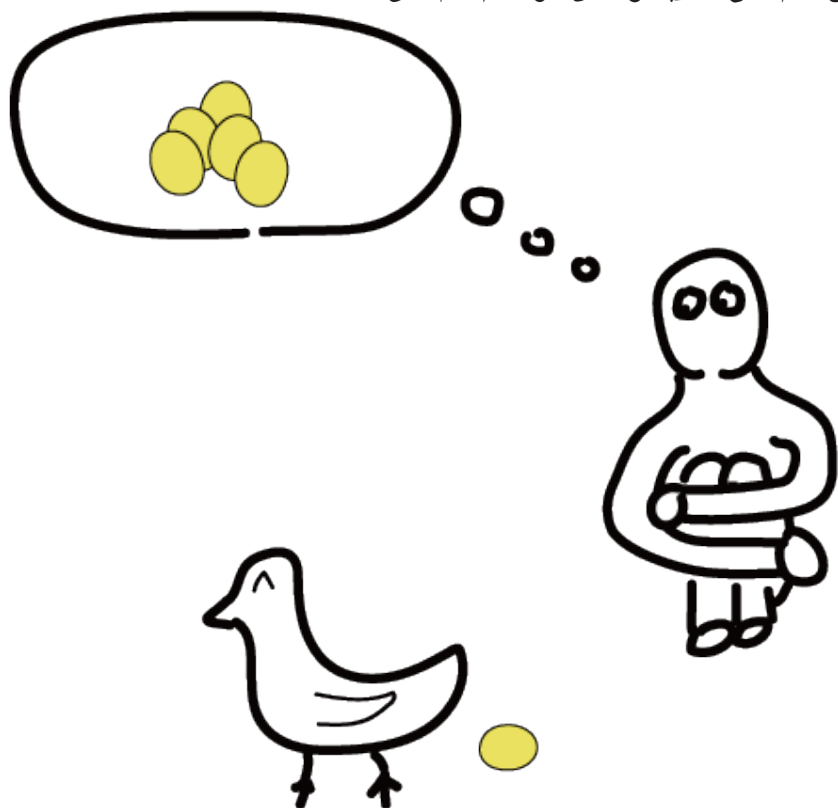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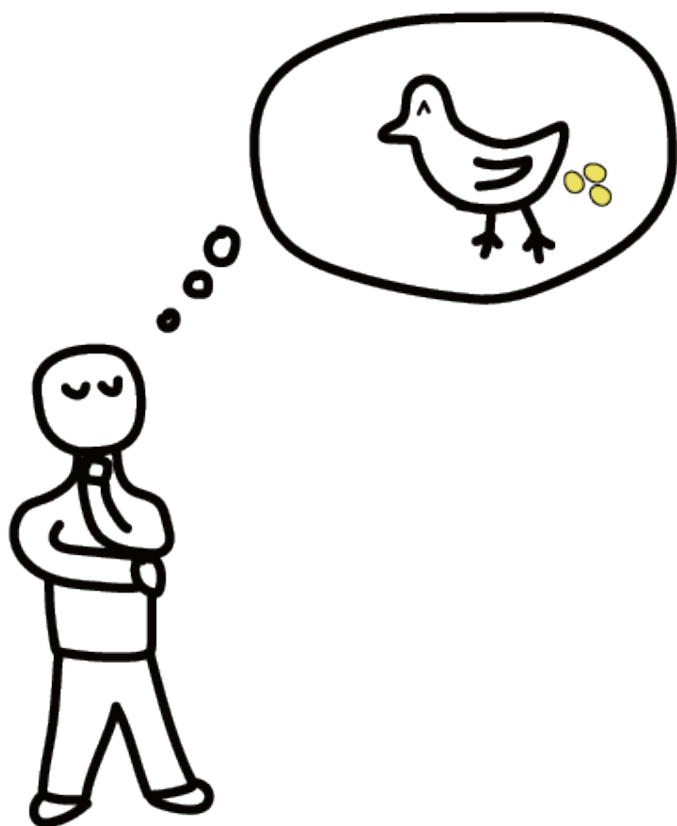


하지만 농부는 그것이 하도 신기해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거위만 바라보고 있을 정도였어요.

어느 날 농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날마다 황금 알을 하나씩 낳다니,
대체 저 뱃속에는
얼마나 많은 황금 알이 들어 있을까?’





농부는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지요,

‘매일 하나씩만 알을 낳으니 감질나잖아. 한번
에 알을 많이 얻을 수 있다면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농부는 욕심이 생겼어요,

06

‘그래! 매일 하나씩 기다릴 게 아니라
뱃속에 든 황금을 한꺼번에 모두 꺼내자.’

농부는 거위를 잡아서 배를 갈랐습니다.

그러나 거위의 뱃속에는 자라다 만 보통 알만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거위가 매일매일 알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위의 배 속에
한꺼번에 많은 알이 들어있을 리가 없는 것이지요.

08

이제 거위가 죽었으니 농부는 앞으로
황금 알을 가질 기회가 없겠지요,

어리석은 농부는 죽은 거위를 안고
그제서야 자신의 욕심을 후회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차라리 매일 한 알씩이라도
계속 황금 알을 갖는 것이 좋았을 텐데!’

하지만 후회해도 늦었지요.

10

이미 죽은 거위는 다시 살아나지 않으니까요.